

총장-뉴스레터 – 87 (2024-8-16)

가나안 땅에서의 할례와 유월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 5:11-12)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 이들은 자신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바친다. 여기서 할례는 앞세대의 죄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애굽 종살이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일종의 정결 예식인 것으로 보인다. 길갈은 ‘굴리다’는 히브리 낱말과 발음이 비슷하므로, 그 뜻을 이런 식으로 풀이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정한 날에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킨다. 할례 받은 자 들만이 유월절에 참여한다. 무교병을 먹는 것도 유월절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이 광야 백성에게 주신 만나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산을 백성이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서 행한 할례 (5:2-9)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를 ‘그 길 안에서’ 라고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문이 이처럼 ‘그 길’을 강조하는 이유는 본문이 가리키는 길이 단지 그들이 방황하였던 땅 위의 길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 여 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했던 삶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로 보건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길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할례를 행하기 어려웠다는 의미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광야 생활 자체가 한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 이동해야 하는 생활로서 할례를 행한 부위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할례를 행하기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언약의 징표인 할례 의식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언약 백성의 신분임을 확인하는 의식이였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 갈 수 있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모든 수치가 제거된 것이다.

약속의 땅에서의 첫 유월절 (5:10-12)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본문에서 행해진 유월절은 세번째 행해진 것이다. 첫 번째는 출애굽시에

제정되었을 때 지켜졌고(출 12: 3-28), 두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지켜졌다. 그 후 광야 생활 38 년 동안에는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 할례는 유월절 예식을 행하기 위한 전제적인 의식이었고, 이 기간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유월절 절기 역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 가게 되자 할례 의식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재 확인하고 이어서 유월절을 행하였다. 38 년 간이나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감격에 잠겼을 것이다.

가나안에서 유월절 재단을 쌓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만나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두 달 쯤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해서 40 여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받아 주식으로 사용했다. 이 만남은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만 허락하신 한시적으로 주어진 음식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을 깨우치려는 의도에서 아론으로 하여금 언약궤 안에 만나를 넣어 두게도 하셨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하여 자신들의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생각하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다.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영적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가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언약 백성의 표가 있어야 한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대치되었다. 또 물 세례는 할례가 선민의 일원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외적 표시인 것처럼 성도가 공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외적 표시이다. 그러나 물 세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게 하는 언약 백성의 표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만나가 아니고 약속의 땅에서 생산하는 소산물을 먹고 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